

## 청년층의 졸업 후 취업경험과 경제활동상태 비교

- 청년층(대졸 이상 15~34세, 이하 '청년층')이 대학 졸업 후 취업한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후 미취업 상태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취업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sup>1)2)</sup>
- 대학 졸업 후 취업한 첫 일자리를 유지(이하 '유지①')하고 있는 청년층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2%대 수준에서 회복하고 있음.
  - 이들의 첫 일자리는 대부분 전일제 근로, 상용직 일자리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 근무 가능한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이며, 다른 유형에 비해 전공관련성이 높은 특징이 있음.
  - 30대 초반 여성의 '유지①' 비중은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하고 있음. '유지①' 청년층의 첫 일자리는 2017년에 비해 전일제 근로 비중이 감소하고 첫 일자리와 전공관련성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30대 초반 여성은 전일제 근로 비중과 전공관련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대학 졸업 후 취업한 첫 일자리를 이직한 후 현재 취업상태(이하 '이직②')인 청년층은 증가추세에 있음.
  - '이직②' 청년층의 비중은 2017년 40.3%에서 2023년 47.1%로 증가하였음. 이들 중 절반이 넘는 청년층이 3회 이상의 '취업경험'을 하며, '취업 → 구직활동 → 취업'을 반복하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음.
  - 이들의 첫 일자리는 시간제 근로 및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자리 비중이 높은 반면, 첫 일자리를 연기까지의 소요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파악됨(평균 6~7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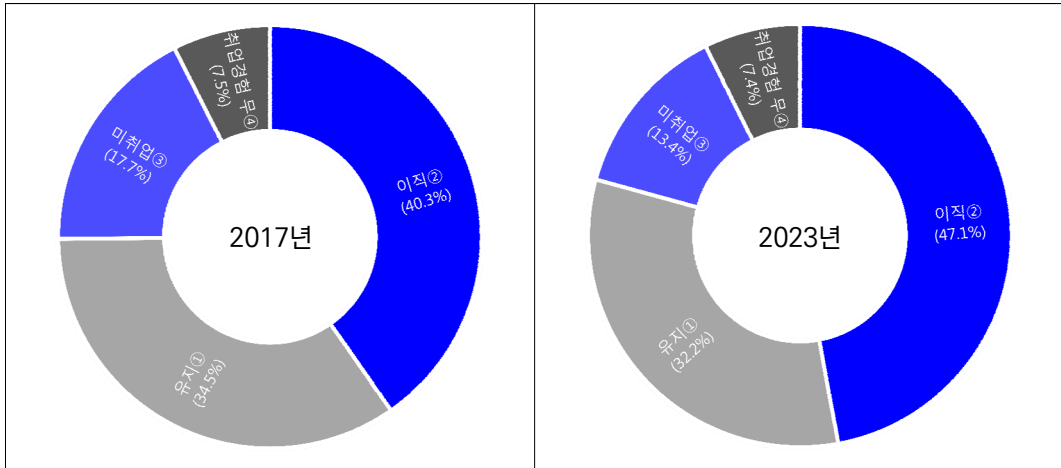
1)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는 2017년부터 조사대상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였음. 대학을 졸업한 15~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학 졸업 후 '취업경험' 유무와 현재 경제활동상태를 연결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네 가지 유형은 '유지(①): 첫 일자리 유지(174만 명)', '이직(②): 첫 일자리 이직 후 → 취업(255만 명)', '미취업(③): 첫 일자리 이직 후 → 미취업(72만 명)', '취업경험 무(④): 노동시장에 진입한 경험 없음(40만 명)'임.

2) 대학을 졸업(중퇴, 수료 포함)한 청년층의 첫 일자리는 졸업 후 취업한 일자리임. 단, 졸업하기 전 재학 중에 가졌던 일자리가 졸업 이후까지 이어진 경우는 '취업'을 경험한 것으로 간주함.

- 30대 초반 남성의 '이직②'이 가장 활발하지만, 최근 30대 초반 여성의 변화가 뚜렷하게 관찰됨. 30대 초반 여성의 '이직②' 비중은 2017년 42.4%에서 2023년 53.5%로 증가하여 동 연령층 남성과 격차는 2017년 11.9%p에서 2023년 7.2%p로 좁혀짐.

[그림 1] 대졸 청년층의 졸업 후 취업경험 유무와 현재 경제활동상태(2017년·2023년)

(단위 : %)



주 : 대학 졸업 후 취업경험 유무와 현재 경제활동상태를 연결하여 '유지(①): 첫 일자리 유지', '이직(②): 첫 일자리 이직 후→취업', '미취업(③): 첫 일자리 이직 후→미취업', '취업경험 무(④): 노동시장에 진입한 경험 없음'으로 구분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2017·2023년).

<표 1> 성·연령별 취업경험 유무와 현재 경제활동상태(2017·2023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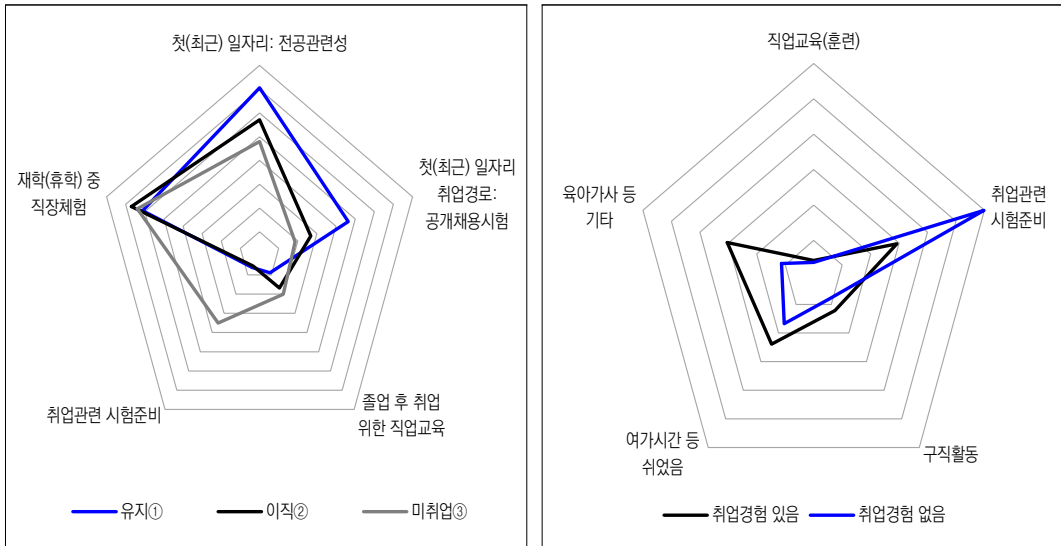
		취업경험 유 (①+②+③)		유지①		이직②		미취업③		취업경험 무 ④	
		2017	2023	2017	2023	2017	2023	2017	2023	2017	2023
		전체	92.5	92.6	34.5	32.2	40.3	47.1	17.7	13.4	7.5
남성	15~24세	73.4	72.2	43.4	45.5	18.1	16.9	11.9	9.7	26.6	27.8
	25~29세	86.8	87.5	41.4	39.5	34.0	37.8	11.3	10.3	13.2	12.4
	30~34세	98.4	97.3	34.8	29.5	54.3	60.5	9.3	7.3	1.6	2.7
여성	15~24세	84.3	83.3	45.1	45.1	25.2	23.5	14.0	14.7	15.7	16.7
	25~29세	94.1	94.4	35.2	32.9	40.7	48.3	18.2	13.2	5.9	5.6
	30~34세	97.3	96.7	20.8	21.2	42.4	53.3	34.1	22.3	2.7	3.3

주 : 성·연령별(5세 단위) 청년층에서 해당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2017·2023년).

- 30대 초반 여성의 '이직②' 비중이 증가한 데는 혼인 연령이 높아지고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육아·가사'를 이유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비중이 감소한 데다 미혼 가구주 비중이 증가한 영향 등으로 보임.)
- [그림 2]는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재학(휴학 포함) 중 직장체험(아르바이트·현장실습·정부지원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 등), 지난주 취업 관련 시험 준비 여부, 첫(또는 최근) 일자리 취업경로, 전공과의 관련성을 유형별('유지①', '이직②', '미취업③')로 비교하여 도식화한 것임.
-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의 세 가지 유형 모두 재학(휴학 포함) 중 직장체험을 한 비중은 60%대 수준이지만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 비중이 높고, 인턴(기업인턴 등)·학교의 현장실습·정부지원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 비중은 낮은 수준이었음.
- '미취업③'의 특성상 취업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비중은 높았으나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직업교육을 받은 경험은 20% 수준에 그침.

[그림 2]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의 유형별·항목별 비교 [그림 3] 취업경험 유무별 미취업기간 주요활동

(단위: %)



주: 1) [그림 2]는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임. 전공관련성은 최종학교 전공과 비교하여 첫(최근) 일자리가 '그런대로 일치'와 '매우 일치'에 해당하는 비중임.

2) [그림 3]은 미취업 청년층의 취업경험 유무에 따른 미취업 기간 주요 활동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2023년).

3) 성·연령별(5세 단위) 청년층에서 해당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임. 취업경험이 있는 30대 초반 여성의 '미취업③' 비중은 2017년 대비 11.8%p 감소하였고, 이들 중 기혼여성의 '육아·가사'로 인한 미취업은 2017년 대비 5.0%p 감소하였음.

- 미취업 청년층(=미취업③+취업경험 무④) 중 '쉬었음'의 비중은 2017년 11.6%에서 2023년 20.3%로 증가하였고, 노동시장에 한 번도 진입한 적이 없는 청년층(이하 '취업경험 무④')은 4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청년층 중 경제활동상태가 미취업(=미취업③+취업경험 무④)인 비중은 2017년 25.2%에서 2023년 20.7%로 감소하였고, 이들 중 취업경험이 전무한 '취업경험 무④'는 7%대 수준이 지속되고 있음.
  - 미취업 청년층 중 '쉬었음'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취업 경험이 있는 '쉬었음(16.4만 명, 2023년)'은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이 불만족스러워 첫 일자리를 그만둔 비중이 높고, 이후 여러 번 취업경험을 한 것으로 보아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해 취업과 구직을 반복하다가 구직 활동을 중단했을 개연성이 높음.
  - 한편 '취업경험 무④'인 청년층 중 절반 이상이 취업을 위한 학원과 기관을 통학하는 '취업준비생(20.2만 명, 2023년)'이고, 미취업 기간 동안 취업 관련 시험 준비를 하는 비중이 취업경험 있는 '미취업③'보다 월등히 높아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 대학 졸업 후 취업한 첫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첫 일자리 이직 후 취업상태에 있는 청년층의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미취업 상태인 청년층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취업과 구직'을 반복하면서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간격을 좁히기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고, 취업경험은 전혀 없지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처한 제반 여건과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처방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